

# 광주 국·영·수 선전...전 영역 전국 상위권

##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해보니

올해 대학 신입생이 치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전남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학교보다는 사립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현상도 여전했다.

◇광주, 모든 영역 표준점수 상위권...전남은 하위권=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 수학, 영어영역의 표준점수와 등급을 바탕으로 한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광주는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10.0%, 수학(7)는 12.2%, 수학(나)는 14.9%, 영어는 9.5%를 기록했다. 모든 영역에서 전국 4위 안에 포함된 성적이다. 하지만 전남은 국어영역(6.7%), 수학 가(7.1%), 수학 나

## 전남은 하위권...수학나 '강', 영어·국어는 '약' 편차 커 사립·대도시·재수생 강제 여전...수학·영어 女風 거세

수학(나)영역은 102.2점, 영어영역은 100.5점으로 2위·2위·4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은 국어영역 표준점수 평균이 95.9점으로 전국 15위를 차지했다. 수학(가)는 91.8점(16위), 수학(나)는 97.7점(15위), 영어는 94.7점(16위)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수년째 이어진 현상이다.

광주는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10.0%, 수학(7)는 12.2%, 수학(나)는 14.9%, 영어는 9.5%를 기록했다. 모든 영역에서 전국 4위 안에 포함된 성적이다. 하지만 전남은 국어영역(6.7%), 수학 가(7.1%), 수학 나

(10.3%), 영어(5.8%)로 낮게 나타났다.

광주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반면 전남은 수학 나영역은 강세를, 영어영역에선 약세를 보이는 등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표준점수 평균의 차이가 국어(57.7점)·수학 가(55.1점)·수학 나(52.2점)·영어(58.8점)로 영어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전남보다 높았다. 전남은 국어(55.5점)·수학 가(45.5점)·수학 나(49.4점)·영어(63.5점) 등이다.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작다는 것은 학교 간 학력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수학·영어 여학생 강제=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

시하는 수학 나형, 영어영역에서 여학생이 높았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같았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높다는 뜻이다.

응시자 재학·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졸업생(재수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다.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높았다. 학교 설립 주체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의 표준점수 평균이 국공립학교보다 높았다.

표준점수 평균 차이는 국어가 5.0점, 수학 가형이 5.3점, 수학 나형이 4.0점, 영어영역이 5.4점이었다.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높았고,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낮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해질 18:22  
달출몰 12:37 달지름 23:04

### 늦더위 식히는 가을비

하리고 비 온 후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C)

광주	하리고 비	20/24	보성	하리고 비	19/25
목포	하리고 비	21/25	순천	하리고 비	20/26
여수	하리고 비	21/25	영광	하리고 비	18/24
나주	하리고 비	20/24	진도	하리고 비	21/25
완도	하리고 비	22/26	전주	하리고 비	19/24
구례	하리고 비	18/25	군산	하리고 비	19/23
강진	하리고 비	21/26	남원	하리고 비	19/24
해남	하리고 비	21/26	축산도	하리고 비	20/22
장성	하리고 비	19/24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먼바다	북~북동	1.5~3.0	북서~북	2.0~3.0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먼바다(동)	남동~남	1.5~3.0	북~북동	1.5~2.5
서부	먼바다(서)	남동~남	2.0~3.0	서~북서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15	06:05	23:58	18:52
여수	06:21	00:20	19:23	13:05

###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3(수)	4(목)
18/26	13/24	14/26	14/26	18/23	18/25	14/24

###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보통
----	-----	-----	----	------	----

## 9월 모평 어려웠다

###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 영어 1등급 전년보다 줄어

지난 6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시행된 수능에 비해 수학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34점, 수학 가형이 131점, 수학 나형이 142점이었다고 26일 밝혔다.

2017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이 139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7점이었다.

국어영역은 최고점이 5점 내려갔지만 수학의 경우 가형과 나형이 각 1점과 5점 상승한 셈이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반대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 비율 역시 0.30%로 지난해 수능(0.23%)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0.14%)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수학은 9월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이 높은 이른바 '킬러 문제'가 승부처가 돼 난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등급과 2등급이 나뉘는 등급구분 표준점수(1등급 커트라인) 역시 국어영역은 128점으로 지난해 수능(130점)보다 2점 낮아졌다. 수학 가형은 125점, 수학 나형은 133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1점과 2점 상승했다.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되는데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은 5.39%인 2만 7695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가위 소외이웃과 마음 나눕니다”

광주시 북구 장애인복지회가 마련한 '추석맞이 한마음나누기' 행사가 26일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중증장애인가정에 전달할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사분위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보류

### 내달 23일 결정키로

7개월 여 법인 이사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5일 조선대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인 10월23

일로 결정을 미뤘다.

사분위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두고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운영권에 대한 구제단 측과 대학 구성원 간 시각 차이로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

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제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구제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꽝 찬 보름달' 추석 이틀 뒤 뜬다

### 내달 2일 비온 후 연휴 '쾌청'

올해 추석연휴인 다음달 6일 새벽 광주·전남 지역에서 꽝 찬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추석 당일인 4일은 왼쪽이 약간 찌그러진 달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한국천문연구원 따르면 광주의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4일 오후 5시34분에 뜬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둥근 모습이 아니며, 뜨고 난 뒤 점점 차올라 이틀 뒤인 6일 새벽 3시 40분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

4일 밤 9시 기준 보름달은 완전히 둥근 달의 97.9%로 왼쪽 약간 찌그러진 모

습을 보이게 된다.

추석 당일 보름달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방향에서 태양의 정반대까지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추석 당일 보름달이 오후 5시34분 뜨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 5시34분에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월 2일에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예보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 특성하고 유망 직종 중심 개편

### 교육청 161억원 투입

전남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유망산업(직종)을 중심으로 학교 개편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49억원)과 학교 개편(38억원)·매력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74억원) 등을 통해 모두 16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이를 도내 특성화고 직업교육 체제개편과 교육과정 혁신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골자는 기업·학부모·학생·전문가 등이 지역산업특성과 지자체 역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망 직종분야로 학교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졸업생들을 취업시킴으로써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교육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